1·3 부동산 대책 한달 광주 집값 하락 폭 확대

광주 아파트 값 올해 2.01% 하락…매수심리 위축에 거래절벽 원인

정부 규제 완화에 분양전망지수 회복세…광주 52.6→80.0로 올라

빙하기에 접어든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에 '봄날'은 언제나 올까.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등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지역 부동산 시장의 한파는 계속되고 있다. 1·3 대책 발표 직후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폭이 줄어들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또 다시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2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7% 하락했다. 올해 들어서만 광주의 집값은 총 2.01% 떨어졌다.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월 첫 주(2일 기준) -0.45%를 기록하다가,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1월 2주(9일) -0.36% ▲3주(16일) -0.29% ▲4주(23일) -0.36% ▲5주(30일) -0.27%로 점차 하락의 폭이 줄어들며 안정감을 찾아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달 접어들면서 -0.37%로 다시 하락 폭이 가팔라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 달 마지막 주 -0.59% 기록했던 동구는 이달 -0.65%로 떨어졌고, 남구는 -0.28%에서 -0.47%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광산구는 -0.31%에서 -0.40%, 서구 -0.28%에서 -0.32%, 북구 -0.15%에서 -0.27% 등 순이었다.

이처럼 정부의 대책 추진에도 집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금리 현상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전세 대출 금리가 높다는 점에서 전세가격 및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 첫 주 광주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39%로 매매가격보다 하락이 컸다. 올해 들어서만 전세가가 -2.12%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세 값이 떨어지면 집값 역시 하락해왔다는 점에서 부동산 경기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58.7)보다 12.4포인트 오른 71.1로 상승했다.

이 지수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을 하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상대로 매달 조사한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광주도 분양전망지수가 지난 달 52.6에서 이달 80.0으로 큰 폭 상승했다. 전매제한과 무주택 요건 완화 등 1·3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아파트 분양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은 "규제완화와 금융지원 등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이 발표됐지만 고금리와 경기 둔화 등 불확실한 경제 변수에 의해 여전히 분양 시장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기준금리 등 대외 변수 해소와 우리 정부의 연착륙 대책 효과에 따라 분양시장도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팜스테이 마을 활성화 논의

농협 전남본부는 9일 영암군 금정면 신유토마을에서 광주·전남 팜스테이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어 24개 마을 대표와 함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농협 제공〉

시설원예 농가 유가보조금 신청 24일까지…2주 연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포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농가의 보조금 신청 기한은 10일이었으나 24일까지 2주 연장했다.

농식품부는 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를 최소화하고자 신청 기한을 연장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았고 이달 3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농가의 약 72%가 신청서 제출을 완료했다.

/연합뉴스

"TV홈쇼핑 방송홍보 영상 제작해드려요"

24일까지 참여 업체 모집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홍보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2023년 TV홈쇼핑(홈앤쇼핑) 중소기업 홍보 방송 제작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와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망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홈앤쇼핑은 기업 소개와 제품 홍보를 위한 3분 분량의 동영상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작, 홈앤쇼핑 방송을 통해 전국에 송출해 홍보한다.

기업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받아 홈페이지, 웹 기술서, 박람회, 미팅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여 대상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품목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주류, 의약품 등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방송금지 품목은 제외된다.

사업 참여 신청기간은 24일까지로, 지원대상 업체는 홈앤쇼핑선정위원회에서 다음 달 6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강진 월남저수지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추진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현장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강진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조영호 전남본부장은 이날 강진군 월남저수지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현재 공정률은 60%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 저수지 제방을 옮겨 저수량을 222만6000t에서 588만6000t으로, 2.5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용수로와 이설도로도 개설한다.

최근 전남 남부권역에 가뭄이 지속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상습적으로 가뭄을 겪는 강진 성전면 수양들 관리구역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농촌용수가 공급되는 농경지는 성전면과 작천면, 병영면 등 900여 ha이다.

조 본부장은 "단기적 가뭄대비책과 함께 항구적 가뭄 대비책을 동시에 추진해 수자원의 지속적인 확보에 힘써 농업인의 물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사 관계자들에게는 "견실 시공을 하고 조기 준공을 위해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효성중공업 '저탄소 경영' 선도 기업 인증

CDP서 '탄소경영섹터 아너스' 수상

효성중공업이 글로벌 탄소정보공개 기관(CDP)으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구현 기업으로 인정 받았다.

효성중공업은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리는 '2022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기후변화 대응·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탄소경영섹터 아너스(Carbon Management Honors)'를 수상한다.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는 2022년 CDP 평가에서 해당 분야 최상위 등급을 달성한 기업에 수여되는 상이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효성중공업의 A- 등급 선정은 선제적으로 저탄소 시대를 준비했기에 가능했다. 효성중공업은 2021년 울산 용연에 수소 공장을 건립하고, 전국적으로 수소충전소 사업을 확대하며 수소 경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전력부문에서는 일찍이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투자에 집중했다. 이에 따라 ESS(에너지저장장치), 친환경 변압기, 친환경 가스절연개폐기 등을 개발하며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외국인, 1월 한국 채권 6조5000억 매도…역대 최대 순유출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채권을 6조5000억원 넘게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중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은 52억 9000만 달러 순유출됐다.

한은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 순유출이다.

1월 말 원·달러 환율(1231.9원)을 기준으로 약 6조5168억원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내외금리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스와프 거래 시 차익거래 유인이 줄면서 채권 매입이 빠졌다"며 "현물환시장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채권 가격이 오르고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차익실현을 하기 좋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은 49억 5000만 달러(약 6조979억원) 순유입됐다.

/연합뉴스